마이북피니언 | 랜덤북피니언 친구북피니언 🛊 바로가기 💠 로그인



독서찰스님의 마이북피니언입니다



검색

BOOK

블로그 | 이용안내 | 혜택안내 | 오픈업안내



도서찬스 [vcs63**]

🔤 북피니언지수 50점

카테고리

□ 전체보기(1)

티 기본 所 읽고싶은책 ል 이유호기/하조평

→ 전체보기

고독, 철학, 쇼펜하우어, 고통 TODAY 17 TOTAL 80

모로보기 | 저훼(1) 좋은글귀 **■ 쇼펜하우어 딸 좋은 고동** ▮ 기보

2019.04.16 09:30:40

역기ㆍ

최신 댓글

DCC 2

다녀간 북피니언

다녀가 북피니언이 없습니다.

RSS2.0 | RSS1.0

최신 댓글이 없습니다.

소면하우어, 막 좋은 고착

[도서] O레지여핀 I 2019/03/22

평점 ★★★★★ 상세내용보기 | 리뷰보기(5) | 관련 테마보기(0)

* **autaur** 적립 : 이 글을 통해 도서를 구매하시면 글을 작성한 분에 게 도서 구매액의 3%를 I-포인트로 적립해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

등록된 글자수: 3253 글자

독일의 철학자, 자신만만한 염세주의자 생을 살았던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고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설명해주는 책이 있어 반가웠는데요.

사실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인생은 고통이요, 이 세계는 최악 의 세계"라는 관점을 이해하기는 힘들었는데요.

책을 있으면서 고통과 고독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사색하는 시간을 가직 수 있어 좋았네요

이 채요 7개이 Chapter 큰 고성되어 있느데요

1장은 나 자시의 사상에 대하 민은은

2장은 고통을 행복으로 전화학 수 있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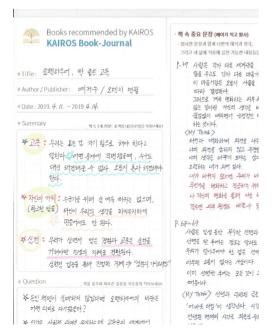
3장은 만족을 통한 자신에게 충실해야 함을

4장은 인간의 험악한 인성을 자제하는 법을,

5장은 고독에 대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6장은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7장은 독립적인 나를 살아가는 사고방법에 대해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접목시켜 저자의 생각들을 하나씩 설 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COS PIA CIE ILLIC 혀대는 쓰이기는 것이 기능한 것만까?

쭈 독세에 대한 다양한 /발탁이 있다. 이번이는 다독음, 이 책의 저자는 정복은 추천한다. 정당이 있는 것인까?

내가 선택한 승간수간의 전쟁에 사회의 개세되지 않고 거이다. 나의 선택은 선택의 순간부터 선 만됐거가며 실적하는 것이 나는

있다. 확성에 찼음에도 이리 써?

그 일라 관련해 충분히 능력이 일

잘해낼 수 있는지를 너무 또랫동안

추계하고 더봇거리는데 지나치게)

이 얼마나 인생을 했되어 사는

일은 진찰이 넓다.

act yet

책 속 중요 문장 (페이지 적고 필사) D. 269 - 필사한 문장과 함께 나만의 해석과 생각, 아름다운 미래를 상상만 하며 등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 실천 가능한 내용들을 적어보세요!(다른 색편 원장 그러면 진실한 천재를 놓치고 만드 현재를 간라한 채 미래만 동경호 이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득에? 실수록 많은 사람이 보만하고 무례해져서 고개를 숙망 로 모든다. 먼저 사라하는 행동은 자신의 덕과 품상을 미래의 일은 진실이 아니며, ㅁ 자선의 행동으로 경청왕을 명심하고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여기에서 한방 더 나아가 가장 진설한 시간은 현재색이다. 가신을 낮추고 타인의 기치를 받아들이면 자신을 계속 우리가 존재하는 시청은 바로 자 성장시킬 수 있다. (My Think) 〈My Think〉 인간은 인정받는 것에 갈구한다고 한다. 인성의 가치라 모든 세구다 보며 장물의 있도 이성하고 사과하는 행동을 유난히 어려워하는 60이 되면 "이2는 단서는 분이에서 이오오 이저의 바기 되죠! 거네 아난까! 하나 생각해 보면 미래에 무슨일은 하기 타민에게 인정 박는다는 것이 4의 전쟁과 멋진 엔만 준비로 하고 있는지 냉칫하게 돌아 보여구는 의형적인 것도 있지만 내면의 생각(라인의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의 행동 의견육 수용하는 짓)이 성상학 수록 진심으로 다가운 것이다. 사과하는 캠들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즉시 하자. '미래의 나'나 함께의 내가 이축-미래의 욕탕 세우기 위해 현객 네가 막은 않이 해서 나의 의견을 관했시키는 것보다 상대병의 스토리 보드한 걱정해 보자. 이야기와 의전운 경청하는 승산은 기르자. 현계를 했다만큼 경상히 상아가는지 P. 295 지정이 지난 것에 갑자하면 싫이 더 행복해진다. 우리는 모두 교통하게 최로 약으로 나타가는 존재다 접근 때 확신하는 일이 있다면, 조 그런데도 늘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다, 심사이 나가기를 바란다. 기다겠다가 나용 수단라 방병을 가리지 않고 빼앗으려 하거나 그것들은 것기 바산다. 께옥 미국다 설면, 몇 년 후에는 하고 좆는다면 , 절호 자산을 잃어버리고 만다. 모른다. 많은 젊은이가 구저하고 1

<my Think> 정문이를 낼만 이내 사람은 각자 다른 세계관을 지니고 있어. 똑같은 일을 두고도 각자 다른 마 음가짐을 갖는다. 이 마음가짐은 오로지 사물을 대하는 개인의 사유 습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계속 변화하는 외부 화경 속에서 우리가 학 수 있는 일이라 자신 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끊임없이 배우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페이지: 쇼펜하우어, 딱 좋은 고독 p.37

리면 생각5

타인과 대화하며 의견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나의 생각에 나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주장을 하곤 합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기 보다는 상대의 생각을 바꾸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내가 되어 있는데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주위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자전이 지던 것이 더 많이 구목하자.

그것한 이유인 것이다.

그러면 혼자 있을 때도 당당하거나 부현하지 않다

〈My Think〉 나른 확교에 하지 않고 구위에 휘도기는 경우

비교하게 되고 부러들만 가지게 된다. 주위의 것이

항상 커보인수 밖에 없다. 나는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매일 아침 갑자랑기를 쏘자. 한가지가 되더라도 감사되

에는 불명 나에게서 행복을 가져다 준 선물이 된 것이다.

무언가를 변화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남을 바꾸려는 것보다 나 자신의 변화를 통해 나를 바꾸고 나의 주위 를 바꾸고 결국엔 외부 환경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66 사람은 일생동안 무수한 선택과 마주한다. 선택을 한 후에는 정도는 달라도 '후회'가 따른다.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선택을 한 후에는 후회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이미 선택한 후에는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변하기 때문이다. 페이지 : 쇼펜하우어, 딱 좋은 고독 p.68~69

선택과 관련된 글을 읽을 때면 영화 '어바웃 타임'이 생각납니다.

시간여행이 가능한 주인공이 선택된 현재의 시간을 되돌릴 수록 또 다른 결과로 현재가 변화되는 내용인데

내가 선택한 순간 순간의 결정에 대해 후회하여도 결코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선택은 선택의 순간부터 선택한 일이 최선이 되도록 만들어 가며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자세가 아닐까요?

나비가 되려면 누에고치를 뚫고 나와야 한다. 하늘 높이 날아오르려면 강한 날개를 가져야 한다.

강한 날개는 나비가 고치에서 나올 때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된다. 의생도 마차가지다 모진 비바람이 없다면 무지개를 볼 수 없듯, 좌절 없이 순탄하기만 했던 인 생은 단 한 차례의 충격으로 무너져 내린다. 99 페이지: 쇼펜하우어, 딱 좋은 고독 p.116

<나의 생각>

성공한 사람들 중 다수의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경험한 후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 많습니

고통과 자전이라 시려운 만서 익어서 후에 개인의 선장 뿐만 아니라 보안 명예도 함께 이루하 경우이기에 누 에고치의 강한 날개를 얻기 위한 인고의 과정처럼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에 포기하지 않는 나만의 지혜를 담 금질 해야 한니다.

힘에 부치거나 좌절하고 싶을 때는 유튜브의 동기부여 영상을 자주 봅니다.

이 영상들을 통해 나를 일으켜 세울 정신적 마인드를 단련시키고 있는데요.

진정 내가 포기 할 수 밖에 없는 지 이유를 열 가지만 나열해 보고, 만약 열 가지 이유를 나열하지 못할 때면, 결코 그 일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닐까요?

사람마다 각자 처지가 다른데 굳이 타인의 기준으로 생활할 필요는 없다. 자신을 더욱 충실하게 만드는 것, 자신에게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 일이다 깊이가 없는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며, 무료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남과 비교 하며, 우둔한 사람은 남을 모방만 한다. 페이지: 쇼펜하우어, 딱 좋은 고독 p.166

주위사람들의 환경과 생활 패턴이 다른데도 비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삶에서 나를 찾아보는 훈련을 통해 휘둘리지 않는 나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새벽기상을 통해 저의 장점과 한때 잊혀졌던 나에 대한 자아를 찾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일기도 쓰고, 사색도 하고, 필사도 하고, 독서를 하면서 나를 단련시키는 멋진 시간 어떠신가요?

66

갈수록 많은 사람이 오만하고 무례해져서 고개를 숙일 줄 모른다. 먼저 사과하는 행동은 자신의 덕과 품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의 지적을 받아들이면 자신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다. 페이지 : 쇼펜하우어, 딱 좋은 고독 p.185

<나의 생각>

인간은 인정받는 것을 갈구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일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행동을 유난히 어려워하는 이유도 타인에게서 인정 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타인에게서 인정 받는다는 것은 나의 장점과 좋은 면만 보여주는 외형적인 것 뿐만 아니라 내면의 생각들 (예를 들면 타인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성장할 수록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66 자신이 지닌 것에 감사하면 삶이 더 행복해진다. 우리는 모두 고독하게 홀로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다. 그런데도 늘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며, 심지어 수단과 방법을 가 리지 않고 빼앗으려 하거나 그것들을 좇는다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고 만 자신이 가진 것에 더 많이 주목하자. 그러면 혼자 있을 때도 답답하거나 불행하지 않다. 22 페이지: 쇼펜하우어, 딱 좋은 고독 p.243

<나의생각>

나를 확고히 하지 않고 주위에 휘둘리는 경우에는 주위의 환경과 사람들에게 비교하게 되고 부러움을 가지 게 됩니다.

주위의 것이 항상 커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이유일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써 보고는 건 어떨까요?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은 분명 느끼지 못할 뻔 했을 행복을 가져다 줄 선물이 되지 않을까

아름다운 미래를 상상만 하며 동경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진실한 현재를 놓치고 만다. 현재를 간과한 채 미래만 동경하면, 우리는 아무런 일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멸시를 당한다. 미래의 일은 진실이 아니며, 미래의 모습은 모두 현재 자신의 행동으로 결 가장 진실한 시간은 현재뿐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시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이다. 99 페이지 : 쇼펜하우어, 딱 좋은 고독 p.269

<나의생각>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세우다 보면 "은퇴하고 나면", "나이가 몇 살이 되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미래의 상상을 하곤 합니다.

생각해 보면 미래에 무슨 일을 계획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볼 필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의 행동에 의한 존재이며,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이루어가는 결과의 모습일 것입

미래의 목표를 위해 현재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지 스토리보드를 작성해 보는건 어떨까요?

현재를 얼마만큼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플래너를 작성해 보거나요??

젊을 때 확신하는 일이 있다면, 진지하게 노력하며 실행해 나가기를 바란 기다렸다가 나중에 한다는 생각은 부디 접기 바란다. 계속 미루다 보면, 몇 년 후에는 하고 싶은 열정조차 사라질 지 모른다. 많은 젊은이가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화신에 찬은에도 이리 재고 저리 재며 이해들식을 따진다. 그 일과 관련해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도 자신이 과연 잘 해낼 수 있는지를 너무 오랫동안 걱정만 한다. 주저하고 머뭇거리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느라 일은 진척이 없 이 얼마나 인생을 헛되이 사는 것인가!!! 페이지: 쇼펜하우어, 딱 좋은 고독 p.295

<나의생간>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중년의 나이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열정보다 새로운 일의 도전이 주는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걱정은 결코 실행에 있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확신이 있다면 절대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5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즉시 시작하는 훈련을 통해 확신에 찬 일을 두려움없이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든다면 시간을 낭비할 일이 없

마지막으로 이 책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 문구를 생각해 냅니다.

고독하다는 것을 즐겨라. 즐기며 사색하자.

사색하고 나를 인정하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타르 쇼펜하우어, 고독, 고통, 철학

(三) 댓글(0) | 엮인글쓰기(0) | 스크랩 신고 🝵 고맙습니다 🕐 ㅣ 인쇄 ■ 같은책 다른리뷰 | 이 책에 대한 다른 리뷰도 읽어보세요. ▲ 쇼펜하우어의 삶과 철학을 통해 고독의 가치와 여러 삶의 교훈을 전해주는 책 레인보우스카이 🔺 쇼펜하우어, 딱 좋은 고독 교 쇼펜하우어, 딱 좋은 고독 hyades ▲ 딱 골라보기 좋은 고독 그 이름 쇼펜하우어 Musinzz